

세대별 식생활 소비패턴과 욕구

박영선 · 정영숙

대구대학교 공과대학 식품영양학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정복지학과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 노령화, 소득수준의 향상, 도시화, 산업화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식생활에 대한 관념이나 행위양식도 변화하고 있다.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대간 격차도 심해지고 있다. 세대차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존재하나, 세대간 차이가 갈수록 심해져 이질감을 느낄 정도이다. 감각적이고 현실적이며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지니고 퓨전음식 세대로 알려진 신세대들은 식생활에서도 편리함을 추구하고 소비지향적이며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각 세대들이 추구하는 식생활의 편리성과 다양성,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선호하는 식생활 문화가 다르고 또 같은 식품을 두고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대마다 상이하다. 최근 이러한 세대간의 식생활 차이에 대해 논란은 있으나 실증적인 자료를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간에 나타나는 식생활 소비패턴과 욕구의 특성 및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조사는 2002년 4월~5월에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세대별 분포를 고려한 층화표집 방법을 적용하여 412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대별 구분은 성장기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기준으로 수용적 세대는 1925~1942년 사이에 태어난 60세 이상이, 베이비붐 세대는 출생연도가 1943~1960년 사이이며 42세부터 59세까지를 포함한다. 신세대는 1961~1981년도 사이에 태어났으며 현재 21세~41세 범위에 속하는 집단이다. 분석방법은 식품 소비패턴 및 구매욕구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분산분석 및 Duncan의 사후검증법을 적용하였다. 식품 소비패턴과 구매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적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식생활 소비패턴은 편의 간편성 추구형을 비롯하여, 차별다양성 추구형, 전통지향형, 이국취향형, 웰빙추구형, 감각지향형, 퓨전선호형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식생활 소비패턴은 세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편의 간편성 추구형, 감각지향형, 이국취향형, 퓨전선호형 등에 대한 분포는 신세대가 베이비붐 세대나 수용적 세대보다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차별다양성 추구형은 베이비붐 세대가 그리고 건강 및 안정을 지향하는 웰빙추구형과 전통지향형에 대한 분포는 수용적 세대가 더 높았다. 식품 소비패턴과 욕구가 세대별로 차이가 나는 이러한 결과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선호전환(taste shift)을 반영하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세대간에 나타나는 식생활 의식의 차이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해 가급적 절약했던 베이비붐 세대나 수용적 세대와는 달리 현재의 식생활과 자신의 느낌을 중시하는 신세대는 소비지향적 성향을 지니고 감정적인 부분을 중시한다. 이러한 패턴 및 욕구의 차이는 식품산업 및 시장이 세대별로 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 담당자 : 박영선
- * Tel : 053)850-6831
- * 휴대전화 : 019-429-1153
- * Fax : 053)850-6839
- * E-mail : yspark1@daegu.ac.kr